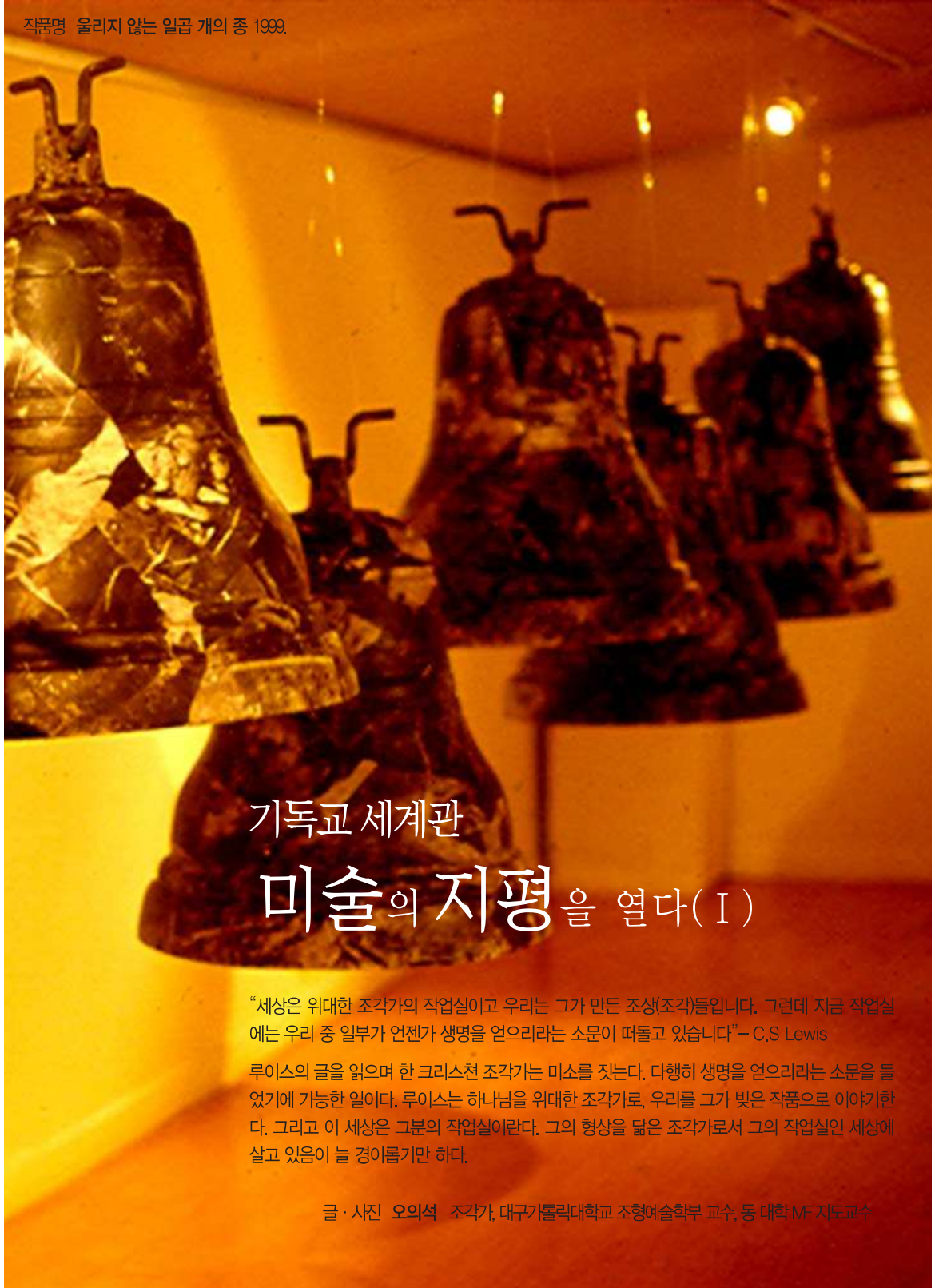


CULTURE

작품명 울리지 않는 일곱 개의 종 1999.



기독교 세계관 미술의 지평을 열다(I)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가 만든 조상(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C.S Lewi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한 크리스천 조각가는 미소를 짓는다. 다행히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위대한 조각가로, 우리를 그가 빛은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분의 작업실이란. 그의 형상을 닮은 조각가로서 그의 작업실인 세상에 살고 있음이 늘 경이롭기만 하다.

글 · 사진 오의석 조각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동 대학 MF 지도교수

예술에 '길을 묻다'

오늘날 예술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청년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그 만큼 똑똑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술이 그 위치를 격하시킨 데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의 위력 앞에서 예술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고 작품은 고가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다. 그래서 예술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는 곧 돈에 목숨을 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인기 스타 작가들이 누리는 명예는 하늘을 치솟고 그들의 성공은 많은 청년 작가들의 선망이 되고 있다.

나의 학창시절인 1970년대의 상황은 분명 지금과 달랐다. 작품이 잘 팔린다는 것이 오히려 작가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고, 배고픈 예술가는 못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작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술은 낭만적이고, 영원과 진리에 이르는 숭고한 길일 것이라는 믿음이 미술학도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미술을 통해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그 길에 뛰어들었으니까 말이다. 나름대로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술은 종교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치 않아 보였고, 철학에 필요한 명석함도 덜 요구되어 보였다. 오히려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하면서, 사회적 통념을 깨는 방종의 삶까지도 묵인 받으면서 그 삶이 구도적인 길로 여겨진다면 그거야말로 생애 최고의 선택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시대의 분위기와 세속적 미술론에, 그리고 자신의 잔피에 속아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술 본연의 위치와 그 사명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모색이 필요했는가? 어쩌면 인생과 예술 전체를 도둑맞을 수도 있었던 청년기의 선택을 돌아보면 지금도 아찔하며 등에 진땀이 흐른다.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예술지상주의자로 미대에 진학하여 조각을 전공으로 선택한 나는 형상의 절대성을 부르짖으며 많은 고집과 역지를 부리곤 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와 투쟁에 몸살을 앓아야 했던 캠퍼스에서 나와 친구들의 미의식은 많이 굴절되고 왜곡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미술

의 순수성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다. 미술도 얼마든지 돈 벌이와 명예의 수단이 되고 정치적 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고 예술을 통해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미술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과도한 집착은 점차 회의로 변해갔다.

그 방황과 분노의 청년기에 말씀이 찾아왔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난 것이다. 찾아온 말씀은 그 동안 의지했던 형상세계 전체를 뒤흔들고 전복시켰다. 말씀의 영원성과 창조성,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에 대한 자각과 체험 앞에서 유한한 피조체로서의 형상이 가지는 힘과 영향력이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형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제자로 따라나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다. 돌아보면 그것은 한 조각가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 때로부터 전공과의 갈등, 교수님들과의 불화와 충돌, 미술계로부터의 소외가 시작되었다. 그 분야의 여정에서 애굽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지만 다시 홍해를 건너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선 제자들처럼 미술과 조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기로 한 청년조각가에게 형상이란 오직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위해서 드러져야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회심한 가난한 청년 조각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고철과 철제의 오브제들을 용접한 십자가의 작품 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그러나 재료의 물성과 순수형상의 추구에 깊이 빠져있던 모더니즘 미술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종교적 테마의 작업이 설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다. 당시 현대 미술의 주요 이슈는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성을 어떻게 국제화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었고 이를 놓고 고심하던 현대 작가들의 눈에 서구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적 주제의 현시는 매우 낯설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말씀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대한 압박은 이처럼 미술계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었다. 보수적인 교회의 전통 안에서조차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보여 왔고 조형 작업의 입지는 매우 좁아만 보였다. 미술계와 교회로부터 느끼는 이러한 압력과 함께 말씀을 직역하여 체현한 형상에 대한 성찰이 내 안에



작품명 흙, 사람, 불 테라코타군상, 1992

서부터 있게 되었다. 그러한 형상과 이미지가 과연 말씀의 실체일 수 있는가?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위험한 것은 아닌지? 이미지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한계와 부작용을 보다 크게 인식하면서부터 확신에 가득차 있던 나의 작업은 다시 딜레마에 빠졌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기독교 세계관의 힘

기독교 세계관은 나의 미술과 작업에 들려온 두 번째 복음과도 같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 작업이 회복되었으며 그 지평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형상화하는 작업의 제한성과 기독교적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말씀의 눈으로 자연과 인간, 역사와 현실, 환경과 일상, 곧 만물을 다루고 조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미술이라는 시각은 놀랍고 복된 소식이었다.

1980년대 후반, IVF 예술학사 모임에서 접한 프란시스 웨퍼의 <Art & Bible>과 한스 로크마커의 <Art need no justification>을 스터디 하던 당시의 흥분을 잊을 수 없다. 그 후 CUP 서적과 라브리 의 강좌는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힘이 되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멤버로 여러 논문들을 기고하게 된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 미국 Calvin College 미술학과에서 일년을 보낸 후, 한국미술인선교회의 위촉으로 연구한 논문 <창조, 타락, 구속의 미술 - 미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조명>은 미술의 전체적 실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루면서 기독교미술론을 정리한 것으로 그 결론을 “기독교 미술 선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다.

세계관으로서의 미술 이해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고 않고 작품세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철에서 흙으로, 1990년대 테라코타 작품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을 작품의 재료인 ‘흙’과 주제인 ‘사람’ 마지막 과정인 ‘소성’을 통해서 유비시켜 낸 작업으로 말씀의 진리됨을 변증해 보

이러는 노력이었다. 지난 세기말 지구촌의 기아와 전쟁, 재난의 사진 이미지들을 특정한 오브제 사물에 콜라지(collage)한 작품들은 말씀의 실천과 참여적인 조형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꿈꾸어 본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고, 작품과 삶의 일치라는 숙제를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 중국 연변을 선택했다. '연변의 흙(사람)과 바람(자연) 속에서' 작업한 야외작품들을 연변과기대의 캠퍼스에 남기게 되었고, 귀국 후에는 '새 순(2006)', '하늘·땅·사람(2008)' 등을 주제로 환경조형의 작품세계를 열어가기에 이른다. 최근 수년간 있었던 개인전, '기념비적 형상'(2006), '부흥'(2007), '열방의 빛'(2008), 2009년의 '로고스아트피아', '불의 흔적', 그리고 2010년의 '조각과 환경' 프로젝트 전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달리하면서 계속된 전시들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며 품는 일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어왔다. 그것은 한 작가의 단편적인 작업들이 모여져서 모자이크를 이루는 공동체적 작업으로서 기독교 미술을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을 갖게 했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산책'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저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대부분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 먼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여러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타락으로 인해 빚어진 왜곡된 세상의 실상과 사람들의 고통

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믿음의 작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삶을 다루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웃한 작가들과 동일한 고백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세계가 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함께 창조의 동산을 가꾸어 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조각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으며, 기독교 세계관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한 그리스도인 조각가의 작업과 삶은 기독교 세계관이 열어놓은 미술의 지평 안에서 더없이 풍성해졌고 그 지경을 넓혀 왔다. 창작과 연구, 교육, 평론과 저술에 이르기까지, 작가로서 감당하기에 벅찬 미술의 풍성한 숲길을 걸어오게 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한 강력한 힘 때문이었다. 그 세계관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작업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루이스의 말처럼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인 이 세상에서 한 점 작품이 생명을 얻고, 감히 작가의 형상을 닮은 조각가로 사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도 없을 것이다.



작품명 연변의 흙과 바람 속에서 과기대 조각공원 2001.